



## 경북팔경 중 제1경 진남교반 3면에서 계속

### 뉴스 다시보기

## 녹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다

녹조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 없애야 (2016.4.28. 중도일보)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발생한 녹조현상을 마치 4대강 사업에 의해 새롭게 나타난 이슈인 것처럼 매년 앞 다투어 문제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녹조가 왜 발생되고, 어떤 인자에 따라 제어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수역의 녹조영향인자는 인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EPA에서는 인의 농도를 0.03mg/L 이상이면 부영양화 상태로 판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4대강 수질은 0.10 ~ 0.20mg/L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과영양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녹조 발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녹조발생 제어로 수역 저층에 용존산소 공급, 조류 제거 등 일시적으로 내부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중기적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같이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방방법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역의 영양물질 유입을 저감시켜 수역의 부영양화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녹조 발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것인가? 선진국 중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있는가? 선진국들의 녹조대책은 무엇인가? 녹조 발생에 의해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앞세워, 아직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녹조 발생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국민을 피해망상에서 벗어나도록 함과 동시에 녹조 발생 제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순화  
영남대학교교수

지면안내 《1면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 뉴스 다시보기 / 2면 기고&현장인터뷰  
3면 문화&연구동향 / 4면 소식&독자참여

### 녹조와 먹는 물 이야기

## 미세조류의 활용에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마다 여름이 되면, 연두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물은 녹조로 뒤덮인다. 녹조는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질의 농도가 높은 호소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 등 미세조류의 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으로 되는

현상이다. 일부 남조류는 독성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 미세조류가 발생한 상수원을 식수로 이용할 경우 복통이나 간 손상을 유발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2만5천 종, 우리나라에는 약 1천3백여 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통하여 유기물과 산소를 생산함으로써 지구 형성과정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생태계의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환경문제의 해결에 미세조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세조류는 종류와 성장환경에 따라 세포를 구성하는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질이 많은 경우에는 바이오디젤 생산에, 탄수화물이 많은 경우에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된다. 또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수계에서 얻게 되거나 다양한 바이오공정에서 배출되는 미세조류는 혐기성 소화를 통해 바이오연료인 메탄가스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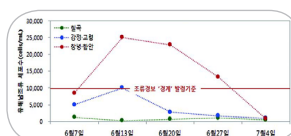
미세조류는 대부분의 필수 비타민과 엽록소, 카로테노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개량하는 생물비료, 수생 동물사료 등 농수산업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미세조류는 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하수에서 오염물질을 영양분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수처리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세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미세조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태호  
부산대학교교수

### 녹조예보



7월 초, 장마기간 동안 내린 강우로 인해 지난 6월 22일부터 창녕·함안 지점에서 발령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관심' 단계로 다소 완화되었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7월의 기온과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수체 내 탁도 감소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온 증가 등 남조류 증식에 적합한 수환경이 형성될 경우, 녹조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남조류의 증식 정도는 강우량 등 기상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이혜진 연구사

※ 녹조 발생현황은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습지를 지켜야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보전국장

우리에게 습지의 보전가치를 본격적으로 인식시켜준 계기는 아마도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일 것이다. 버려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던 습지가 생물서식지로서 중요한 터전이며 우리 삶에도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전환점이 된 총회였다. 그리고 습지가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습지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식량생산지이며,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원천일 뿐 아니라,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기초적 토대가 되기도 한다. 4대강사업의 이유 중 하나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예방이었다. 그러나 그 사업방식은 기후변화의 대응방향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강변의 크고 작은 습지들이 4대강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전략도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습지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는 터전이다. 가뭄에는 물을 내어놓고, 홍수 때는 물을 품는다. 한방향의 아닌 양방향의 위험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람사르협약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도 하나의 큰 하천 습지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으나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을 습지라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수심만으로도 습지라 부르기 어렵게 되었고, 습지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인 수질향상의 기능에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력은 더욱 축소되었다고 봐야 하겠다. 따라서 강을 되살리고, 습지를 되살리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 자연이 주는 선물, 강바람 산바람



강미아  
안동대학교 교수

강바람은 강에서 태어나 사람들에게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그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거리며 찾아간다.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맞춤형 세기로 맞아하게 하는 마력을 가진 그가 곧 바람이니 반기지 않을 이 누가 있으랴.

길이 521.5km의 낙동강은 태백 황지에서 매일 5천 톤의 새로운 물로 바람을 잉태하고 그 길이만큼 장대한 바람으로 자라게 한다. 낙동강의 바람은 경북 안동을 지나면서 안동호를 만나 살가운 바람으로 변신하고, 구미에서 강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낙동강하구언까지 가는 길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 한자락 쉬어 가기도 한다. 유역면적 23,817km<sup>2</sup>로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바람의 터전에서는 그가 만나지 않을 것들이 없을 만큼 낙동강의 바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근년에는 상류의 상주보를 시작으로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장녕보, 창녕함안보 등 8개 보의 역할이 이수과 취수에 적절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람, 낙동강 바람이다.

산바람은 산에서 부는 바람이다. 산 밑으로 내려오면 커다란 물동이가 있고, 그 물동이는 수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호소(담)이다. 즉 산바람은 호소에 담겨 다시 강바람으로 변신한다. 산바람은 호소들의 질적·양적 다 양성을 수용하고 호소마다의 다중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면서 강바람으로 성장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자연이 자연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다.

사람은 자연과 함께 성장과 변화를 할 수 있다. 산바람의 변신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 활동과 강바람이 찾아가는 길목을 막지 않는 성공적 정책의 도입과 제도의 실행을 통해 사람이 자연에게 받은 선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낙동강 강바람이 유역주민 개개인에게도 우리 사회전체에도 구석구석 살랑거리며 기분 좋게 찾아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 물과 생활 이야기

## 놀던 물이 좋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뜻하지 않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바뀌어 그렇다지요. 맛도 냄새도 색깔도 없는 물은 어디서나 같은 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에 따라 배탈 설사를 만나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목욕의 면역과 저항력이 떨어졌거나, 내장이 몹시 민감하여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 정든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이지요. 또는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 크게 활약할 수 있는 때를 만난 좋은 처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놀던 물이라니요. 물이 얼마나 가깝고 의지가 되기에 그런 표현을 썼는지, 절로 미소가 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이란, 그렇게 아주 만만한 상대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물입니다. 물과 물이 만나 부딪히며 서로 섞여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투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물이 서로 만나면 선순환이 되고, 나쁜 물이 만나면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제 어디 물 뿐이었습니까.

- 수필가 허봉조

## 현장인터뷰

## 실시간 모니터링,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인근에 위치한,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를 찾아갔다. 낙동강변의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북구, 사하구, 사상구 전역을 처리구역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공정 및 운영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해 강변사업소 정인철 소장과 박석식

박사를 만나 주요 현황 및 특징을 들어보았다.

강변사업소는 고도처리공법 등 최첨단 하수처리공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처리구역 내 위치한 많은 배출업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농도 폐수 배출을 즉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질측정용 자동 샘플링 및 용존산소(DO)농도 자동제어장치 운영으로 하수처리공정의 자동화와 함께 배출부터 중계펌프장, 유입수, 생물반응조, 최종방류수에 이르기까지 5단계 감시시스템으로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 유출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감시시스템 운영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앙통제실 외에서도 언제든지 용존산소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체 기술 진단 및 노하우를 통한 처리 수질 향상으로 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 <제4편> 영강

영강(潁江, Yeonggang)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문경시, 상주시를 흘러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 속리산에서 발원한 영강



운강이 되며, 가은읍 남부를 지나 마성면 신현리 부근에서 북쪽에서 흘러오는 조령천(鳥嶺川)을 합하여 영강이 된다.



경상북도 팔경의 하나로 절벽과 정류(淨流)와 온갖 꽃들로 절경을 이루는 명승지이다.

총 길이 78km, 경북 상주시 화북면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문경시 농암면 중앙을 흐르는 농암천(籠巖川)이 되고, 농암면과 가은면의 경계에서 산지를 곡류하면서 동북류하여

두강이 합쳐 남동류하며, 어룡산(魚龍山)과 오정산(烏井山) 사이의 산지를 관류할 때에는 곡류하여 감입하천(嵌入河川)이 된다. 이곳에는 고모산성(姑母山城)이 있고, 진남교반(鎭南橋畔)은



문경시 동부를 지날 때에는 곡 너비도 넓어져 넓은 평야가 발달하고 하천은 망류(網流)한다. 함창읍 동쪽에서 서쪽에서 흘러오는 이안천(利安川)과 합류한다.

이 함창읍과 문경시 일대는 삼각형의 넓은 평야를 이루고 합류한 뒤 유로를 동쪽으로 바꾸고, 영순면 말음리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상류부는 경상북도 제일의 광산지대로 문경탄광을 비롯하여 흑연·시멘트 등의 산지가 되며, 하류는 넓은 평야의 발달로 주요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

또 하천 연안에는 사과를 비롯한 과수재배가 성하다. 유역에는 가은·함창 등의 고읍(古邑)들이 발달하였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영강 편)  
- 사진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취재팀 제공

- ①황지 ②반변천 ③내성천 ④영강 ⑤위천 ⑥병성천  
⑦감천 ⑧회천 ⑨금호강 ⑩황강 ⑪남강 ⑫계성천  
⑬청도천 ⑭화포천 ⑮양산천



#### 여행스케치

### 낙동강 발원지로부터 물따라 맛따라 경북팔경 중 제1경, 진남교반(鎭南橋畔)



영강을 따라 문경시 마성면에 가면, 경북 팔경 중 제1을 자랑하는 '진남교반'이 있다.

교반(橋畔)이란 다리 주변을 알키는 말로, 진남 교반을 따라 '4대강 국토종주 새재 자전거길'이 나란히 있으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기암괴석과 울울창창한 숲과 맑은 물이 3박자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주차장과 휴게소, 인공폭포 등이 마련되어 여름철 휴양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휴게소와 인공폭포는 2016년 7월 현재 공사 중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주변에는 원삼국시대의 성으로 추정되는 '고모산성'이 있어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고, 영남옛길도 체험할 수 있다.

#### 국물 맛이 얼큰한 민물매운탕



진남교반 주변에는 국물 맛이 얼큰한 매운탕 집이 여럿 있다.

물이 맑은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는 풍경도 볼 수 있고, 상류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사용해 국물이 진하고 얼큰하다. 오미자의 고향으로 오미자 와인이나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문의 및 안내> • 문경시 관광진흥과(054-550-6393) • 문경 문화관광 <http://tour.gbmg.go.kr>

#### 연구동향

### • 낙동강 총인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방안 연구 추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역별 가축분뇨 배출이 소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심지역에 대한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오·폐수의 1%에 불과하나,

오염부 하량은 37%에 해당되며, 생활하수에 비해 BOD 부하량은 90배에 달한다. 특히, 가축분뇨는 발생량 통계가 부정확하여 관리가 어려우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가축 사육으로 인해 인과 질소가 토지에 흡수되지 못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낙동강의 주요 오염원(T-P)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낙동강의 가축분뇨 발생 대표 중권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권역의 소지류별 가축분뇨 발생량을 정밀 조사하여 우심지역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최영균 교수가 오는 12월까지 수행하며, 향후 관련 지자체에 가축분뇨 상세 정보 제공 및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Now

## 환경규제 두드림, 규제개혁 현장소통 간담회 가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환경규제 두드림”에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규제개선 대안 마련을 위한 기업 환경규제 현장소통 간담회를 6월 2일 개최했다.

LS산전(주) 부산사업장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전자, 기계, 화학, 식품공업, 발전업 등 24개 녹색기업 회원사와 환경부 법무담당관, 규제 담당 사무관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었으며, 규제의 주요 관리방향 등 기업들이 꼭 지켜야 할 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업에 전달하는 생생한 소통의 기회로 이어졌다.

- 프리랜서 황은영

## 호국보훈의 달, 윤성규 환경부장관 김해보훈요양원 찾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김해보훈요양원을 찾아 참전용사 및 그 유가족들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뵙고 감사와 위로의 손을 잡았다.

김해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요양시설로,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윤 장관은 임석훈 원장으로부터 보훈요양원의 운영상황 등을 귀 기울여 듣고, 요양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따뜻한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환자들과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재활운동기구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위문금 전달과 함께 대한민국의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했다.

- 부산대학교 최지원

##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강우시 농지, 도로, 산지, 축산지역 등 불특정장소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은 하천 오염부하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낙동강 수질 악화, 녹조현상 심화, 수생태계 파괴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비료, 농약 등의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 오염 기여율이 매우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료는 시비처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비가 오기 전 비료나 농약 살포는 자제하며, 축분이나 퇴비는 반드시 덮개 등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홍보동영상·리플릿은 도 홈페이지·실국게시판·환경산림국 게재)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Festival



- ▶ 강주 해바라기축제 (7.8~8.7, 경남 함안군 강주마을 일원)
- ▶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7.22~7.25, 경북 영천시 보현산천문과학관)
- ▶ 김천 자두·포도축제 (7.22~7.24, 경북 김천시 김천종합스포츠타운)
- ▶ 울산조선해양축제 (7.22~7.24, 울산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
- ▶ 울산서머페스티벌 (7.23~7.29, 울산 태화강 대공원, 진해해수욕장범서체육공원 일원)
- ▶ 대구치맥페스티벌 (7.27~7.31,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
- ▶ 삼천포항 자연산전어축제 (7.27~7.31, 경남 사천시 팔포매립지 일원)
- ▶ 포항국제불빛축제 (7.28~7.31,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 함양산삼축제 (7.29~8.2,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일원)
- ▶ 황강 레포츠축제 (7.29~7.31, 경남 함천군 정양레포츠공원) ▶ 함천호리축제 (7.30~8.15, 경남 함천군 영상테마파크)
- ▶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 (7.30~8.7, 경북 울진군 염전해변 일원) ▶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7.30~8.15, 예천 공설운동장 및 곤충생태원) ▶ 제21회 부산바다축제 (8.1~8.7, 부산시 해운대·광안리·송도·송정·다대포해수욕장 일원)
- ▶ 제11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4~8.7, 부산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 독자참여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게재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낙동강수계 통합물관리 연구네트워크

발행·편집·인쇄: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16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 대표전화 055-213-2768 | Fax 055-264-6889 | sym@gngec.or.kr

## News Room

## 울산센터, 「자연생태 아카데미」 교육 실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자연생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한다. 숲을 포함한 자연 생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해설가 활동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기초적인 이론적 학습은 물론 실제 유아 및 초등생들을 만났을 때 자연생태 이야기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잡아주는 교육이다.

실내 이론수업 후 현장에서 확인 및 전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자연생태 교육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접할 수 있고, 기존 활동가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 부산센터, 「환경안전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실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7월 한 달 간 「환경안전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환경안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부경대학교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자격 취득 및 교육생의 취업역량 강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세한 교육내용은 부산녹색 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경북센터, 「2016 대학생 환경실천홍보단 양성」 교육 실시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2016년 7월부터 「2016 대학생 환경 실천 홍보단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 생활 확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위촉한 「제6기 캠퍼스 에코리더」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환경 홍보 활동 및 환경실천방법 등을 교육한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써 다양한 활동사례, 환경캠페인 기획 등을 배우면서 환경활동 수행 수준을 높이고, 환경자료 조사방법, 스피치 스킬 등 참가자의 개인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